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01



Contents

※ 2025.10.23(목) 기준(대상 기간 : 2025.10.16.~2025.10.2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국회 ‘탄소중립캠퍼스’ 토론회, 대학 역할 강화 공감대 형성 (2025.10.16)1
- 서귀포, 탄소중립포인트 주행거리 정산 접수 (2025.10.16)1
- 충남·세계한인여성회장협, 수덕사 ‘탄소중립 걷기’ 실천 행사 (2025.10.16)1
- 진천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난방비 절감·탄소중립 추진 (2025.10.16)2
- 부안군, 수전해 연계 ‘수소도시’ 기본계획 확정...통합 에너지 청사진 제시 (2025.10.16) 2
- 제4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 개최 (2025.10.16)3
- 서울 SEP 전시, 전기이륜차·재활용 우비로 ‘탄소중립 서울’ 실행 강화 (2025.10.16) ..3
- 전주 탄소중립완산마을, 우산 수리로 자원순환 실천 확대 (2025.10.16)3
- 대구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인원·대표성 최하위 지표 확인 (2025.10.17)4
- 포항 ‘탄소제로도시 네트워크’ 시민 출범, 산업·도시 전환 연대 확산 (2025.10.18)4
- 포항, 북극서클총회서 해양·탄소중립 협력 외교 가속 (2025.10.18)5
- 당진 탄소중립센터, 포스터·숏폼 공모 시상...생활 실천 문화 확산 (2025.10.19)5
- 경남적십자사 RCY, 플로깅·수소전시 체험으로 청소년 탄소중립 인식 제고 (2025.10.19) ..5
- 세종한글축제, 다회용기 전면 도입으로 온실가스 13.6t 감축 (2025.10.19)6
- 광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50기 확충...2045 탄소중립 가속 (2025.10.19) 6

- 스웨덴 왕세녀 방한, 한·스 '제조강국' 녹색전환 협력 강화 제안 (2025.10.19) 6
- 제주 파력 기반 '해양 그린수소' 실증, 탄소중립 미래 에너지 옵션 부각 (2025.10.20) 7

■ AI 분야 7

- 김영훈 장관, "AI·고령화 전환기, 노동 존중 '진짜 성장' 만들 것"(2025.10.16) 7
- 과기·산업·중기부 '기업 출신 3장관', 산업계 AI 대전환 원팀 구성(2025.10.16) 8
- 관세청, 불법유통·환치기·AI 혁신 등 '관세의 힘' 성과 발표(2025.10.16) 8
- 경기도, 전국 최초 제조기업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체계 구축(2025.10.16) .. 8
- 김영록 전남지사,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남 미래 산업 선도 전환점"(2025.10.16) · 9
- 성남시,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으로 혁신 허브 도약(2025.10.16) 9
- 울산시, AI 융합 교육으로 콘텐츠 산업 혁신 가속화(2025.10.16) 10
- 김해시, "AI로 침수 감지"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박차(2025.10.16) 10
- 충남도, "도민 안전·AI 경쟁력 강화" 위한 조직개편 추진(2025.10.16) 10
- 울산 문화예술인, 복합문화공간 및 AI 콘텐츠로 활동 영역 확대(2025.10.16) 11
- 강원도, 2029년까지 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450명 양성 목표(2025.10.16) 11
- 서울런 3.0, AI 맞춤형 대입 컨설팅 및 유망 직업 체험 제공(2025.10.16) 12
- 경기도서관, '기후위기·AI시대 대응 도서관 전략' 국제 컨퍼런스 개최(2025.10.16) 12
- IFEZ, '강화남단·K-콘랜드·AI 허브'로 미래 비전 제시(2025.10.16) 12
- 대구 'FIX', 한국판 CES 목표로 AI 대전환 선도(2025.10.16) 13
- 경남도, 내년부터 '경남형 통합돌봄' 시행... AI 복지플랫폼 구축(2025.10.16) 13
- 경북도, AI 드론 활용한 선제적 산불 예방 단속 돌입(2025.10.16) 13
- 완주청소년문화의집, '피지컬AI 자율주행 로봇여행' 프로그램 성료(2025.10.16) 14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5

▪ 탄소중립 분야 15

- “탄소중립은 공짜 아님” 전기요금 방향 논의 세미나 개최 (2025.10.16)15
- “CCUS 필수 기술 부상...초기시장 인센티브와 통계 인프라 필요” (2025.10.16)15
- 에어버스, 한국을 아시아 핵심 파트너로 선언...R&D·탄소중립 협력 확대 (2025.10.16) 15
- 주한규 “원자력, 저비용 전원으로 탄소중립·AI 전력 수요 대응 해법” (2025.10.17) ..16

▪ AI 분야 16

- 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 30개 입법과제 처리 건의 (2025.10.16)16
- '2025 Sea AI 포럼' 성료, 해양수산 AI 협력 생태계 구축 논의(2025.10.16)17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 고액 체납·편법 증여 추적(2025.10.16) 17
- 제주테크노파크, "AI와 제주 특화산업 융합 방안" 포럼 개최(2025.10.16)1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8

▪ 탄소중립 분야 18

- 허동수 “탄소중립 AI 시대, 점진적 전환·에너지 주권·인재 강화 3대 해법” (2025.10.17) 18
- 탄소중립 실현, 산업 구조와 비용을 고려한 현실 전략 제언 (2025.10.16)19
- RE100 시대적 요구 강조...탄소중립 접근 사고와 행동 전환 제언 (2025.10.16)19
- KAIDA 30주년 세미나, 자율주행·탄소중립·안전 정책 과제 논의 (2025.10.22)19

▪ AI 분야 20

- 뤼튼, 'AX 리포트' 공개... "AI로 노동시간 최대 73% 단축"(2025.10.16) 20
- SK브로드밴드, AI 기반 'AQUA' 시스템 도입으로 B tv 품질 혁신(2025.10.16) 20
- 인텔, AI 추론용 데이터센터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 공개(2025.10.16) 21
- AMD, 메타 '오픈 랙 와이드' 기반 AI 인프라 플랫폼 '헬리오스' 발표(2025.10.16) 21
- SK하이닉스, 이천시에 'AI 반도체 드림 버스' 전달(2025.10.16) 22
- 시스코 보고서 "한국 기업 AI 선두주자 8% 불과, 인프라 미흡"(2025.10.16) 22
- 인트플로우 '엣지팜', 돼지 걸음 분석 AI로 CES 주목(2025.10.16) 22
- 레드햇 AI 3 출시, 분산형 추론 AI 탑재로 복잡성 단순화(2025.10.16) 23
- KT, 전 직원 AI 윤리 교육 의무화... "AI 중심 체질 개선"(2025.10.16) 23
- 노용석 차관, "AI는 생존기술... 스타트업 전폭 지원"(2025.10.16) 23
- 삼성SDS, 네이버·카카오·KT와 '빅텐트' 꾸려 국가AI컴퓨팅센터 도전(2025.10.16) 24
- 5대 그룹 총수, 美 마러라고 방문... AI·반도체 한미 협력 강화(2025.10.16) 24
- 동의과학대, 부산 채용박람회서 건강 상담 및 AI 체험 부스 운영(2025.10.16) 25
- 맹수석 교수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AI 시대 대전교육 논의(2025.10.16) 25
- 경북대-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소재·AI·바이오 연구 업무협약 체결(2025.10.16) 25
- 오픈AI, 챗GPT 내 상점 및 자체 칩 설계로 AI 전방위 확장(2025.10.16) 26
- '글로벌 AI컨퍼런스 AICON 광주 2025' 개막, AI 중심도시 비전 가속(2025.10.16) · 26
- 김병국 ASTI 회장, "AI 시대는 기회, '글로벌 ASTI'가 세계 시장서 해법 모색"(2025.10.16) .. 2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국회 ‘탄소중립캠퍼스’ 토론회, 대학 역할 강화 공감대 형성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야 의원 공동 주최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전략 논의,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 대학 부문 비중 재인식, 교육·연구·참여 전 영역의 선도 역할과 학생 실천 학습장 조성 필요성 강조 - 에너지 관리, 자원순환, 친환경 교통, 녹지·흡수원 관리 등 캠퍼스 전 영역 통합 관리 체계 필요, 데이터 기반 목표 설정과 성과 공개 의무화 방향성 제시, 지역사회 연계와 공공 조달 연동을 통한 확장성 확보 - 재원 조달과 거버넌스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대학 선정과 단계별 확산 로드맵 요구, 교육과정 내
<p>지자체</p>	<p>☐ 서귀포, 탄소중립포인트 주행거리 정산 접수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인센티브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실적 등록 접수, 등록 기한 11월 7일, 산정 기준 4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주행거리,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12월 말 지급 예정, 참여 확대 통한 생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유도 목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0월 1일 참여자 대상 최종 실적 등록 안내 문자 일괄 발송, 등록 방법 및 문의 창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지정, 절차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참여자 편의 제고 및 제도 신뢰성 강화 - 주행거리 기반 성과 보상 체계 도입으로 친환경 운전 유도 및 탄소 저감 행동 전환 촉진, 지역 교통부문 감축 실적 관리와 인센티브 집행의 연계 강화 필요, 기한 내 등록 독려와 사후 정산 투명성 확보 필요 <p>☐ 충남·세계한인여성회장협, 수덕사 ‘탄소중립 걷기’ 실천 행사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줄이기, 우리를 구합니다’ 주제의 걷기대회가 예산 수덕사 일원에서 개최, 참가자들이 5km 코스를 걸으며 문화유산 관람과 더불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성의 의미 체감, 일상 속 친환경 실천 확산 의지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의문 낭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자원순환 전환,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생활화와 친환경 운전 등 행동 원칙 천명,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연대 기반의 실천 지향 - 지역 공동체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생활부문 배출 감축 촉진, 문화·관광 자원과 환경 교육의 결합을 통한 참여 동력 확대, 정례화와 네트워크 확장 필요. <p>원문 제목: 충남·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수덕사에서 '탄소중립 걷기 실천' 대회 개최</p>
	<p>□ 진천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난방비 절감·탄소중립 추진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마을회관·복지시설 등 난방취약시설 대상 펠릿보일러 설치비 지원 추진, 산림부산물 연료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난방비 절감 기대,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 모델 구축 - 지역 목재산업단지·펠릿 생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자원순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보급 사업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의지 표명, 운영·유지 관리 역량 확충 필요 - 올해 하반기 주택용 16대·사회복지시설용 3대 등 총 19대 보급 계획 제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대상 확대를 통한 단계적 확산 추진,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열전환 모델 확산 기대
	<p>□ 부안군, 수전해 연계 '수소도시' 기본계획 확정...통합 에너지 청사진 제시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을 잇는 통합형 수소도시 모델 확정,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주거단지 전기·열 공급과 수소 교통망 확장 계획 포함,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 확정 - 새만금 RE100 국가산단과 부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연계를 통한 자립적 순환 에너지 체계 구상 제시, 공급 인프라·융복합 산업단지·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논의, 현대건설·유신·전북TP 컨소시엄 협력 구조 구축 - 수소경제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선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거점화 목표, 인프라 투자와 제도 지원의 병행 필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제4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 개최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엑스코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47주년 기념행사 개최, 자연보호 유공자 포상과 참여 독려 진행, ‘기후위기 대응은 자연보호로부터’ 주제 아래 전국 회원 대규모 참여 - 지자체·시민·지역사회 공동 실천의 중요성 강조 발언 제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치 아래 생활 속 자연보호 실천 확산 기대, 지역 기반 환경 거버넌스 강화 의지 표명 - 행사 계기 자연기반해법과 시민 네트워크의 역할 재조명, 참여 확장과 교육·캠페인 연계에 따른 배출 감축 파급 효과 기대, 지속가능 도시 전략과의 연동 필요
	<p>□ 서울 SEP 전시, 전기이륜차·재활용 우비로 ‘탄소중립 서울’ 실행 강화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SEP 2025 전시를 통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확대와 배터리 잔량 기반 주행 거리 정보 제공 등 실사용 편의 제시, 상인·산단 추가 지원과 배달업 장비 무상 설치 연계로 내연기관 대체 가속, 2050 탄소중립 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 부문 전동화 촉진 - SH 영구임대가구 지원에서 민간 노후주택으로 확대한 창호 고효율 교체 사업 추진, 2년간 5276가구 지원과 150억원 규모 융자 병행, 실내온도 상승과 난방에너지 16% 절감 효과 근거 제시, 건물 부문 배출 비중 68% 현실 반영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 강화 - 페트병 64개 재활용 원단으로 제작한 자외선 차단 레인코트 등 재활용 제품 전시와 재활용 플라자 활동 소개, CDP 도시평가 3년 연속 A 등급 성과 공유, 시민 참여 기반 재사용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정착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행동 전환 촉진
	<p>□ 전주 탄소중립완산마을, 우산 수리로 자원순환 실천 확대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재질로 분리배출이 어려운 우산의 수리·재사용 활동 전개, 고쳐 쓰기 실천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가치 회복 추진, 일상 속 수선 문화 정착을 통한 생활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촉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데코 주관 우산수리소 운영과 원데이 클래스 개설 계획 발표, 지역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 역량 강화와 사회적 학습 효과 창출, 커뮤니티 기반 순환경제 네트워크 확대 - 소량 다품종 생활용품의 장기 사용 유도를 통한 생산·수거·소각 과정 배출 회피 효과 제시, 지방도시 맞춤형 저비용 감축 사례로서의 파급 가능성 강조, 정례 운영과 성과 공유 체계 구축 필요.
	<p>□ 대구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인원·대표성 최하위 지표 확인 (2025.1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위원 수 16명으로 전국 평균 35명 대비 절반 수준 확인, 광역단체 중 최하위 규모로 정책 심의·조정 역량 제약 우려, 지역 맞춤형 감축·적응 과제 추진 체계 보강 필요 - 청년 위원 부재와 아동·청년·여성 등 다양한 당사자 대표성 미흡 지적, 사회적 포용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 보완 요구,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숙의 구조 설계 필요 - 위원회 구성 다변화와 전문성·대표성 균형 제고, 시민사회·산업계·학계 연계 강화와 공개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기반 구축 필요, 성과 지표 연동 운영 개선
	<p>□ 포항 ‘탄소제로도시 네트워크’ 시민 출범, 산업·도시 전환 연대 확산 (2025.1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도시 포항 만들기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미래산업 발전을 목표로 시민 네트워크 출범, 정부·지자체·산업체 정책에 대한 시민 감시와 협력 체계 구축 의지 천명 - 탄소중립·수소환원제철 포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시민·산업의 긴밀 협력이 성공 조건임을 재확인, 생활 속 실천과 산업 전환의 동시 추진 필요, 지역 맞춤형 감축 해법 발굴 촉진 - 우리 동네 탄소제로 활동, 친환경 재생용품 사용 등 참여형 프로젝트 전개, 시민 직접 참여와 성과 확인을 통한 동기 강화, 지역 산업 전환과 도시 탄소중립 정착을 위한 지속 운영 목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포항, 북극서클총회서 해양·탄소중립 협력 외교 가속 (2025.1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장이 북극권 최대 국제포럼 참석을 통해 산업도시에서 탄소중립·해양경제 거점 도시로의 도약 의지 표명, 기후 외교의 새 협력 축 형성 - 아이슬란드 외교·환경에너지기후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기어선 공동개발 논의, AEC 가입 의사 표명과 북극협력주간 MOU 제안, UArctic와 공동 연구·인재 양성 협의, 북극시장포럼 회원 가입 추진 - 북극항로와 영일만항을 잇는 해양경제 축 구상 공식화, 북극-동해-태평양 네트워크 전략 시동,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신북방 물류·에너지 협력의 연계 강화
	<p>□ 당진 탄소중립센터, 포스터·숏폼 공모 시상...생활 실천 문화 확산 (2025.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과 환경 의식 고취를 목표로 포스터·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 진행, 생활 속 실천 아이디어 발굴과 공유 플랫폼 구축 의지 강조 - 전문가 평정과 SNS 호응 반영으로 수상작 선정, 유아·청소년·성인 참여 다변화와 생활 밀착형 메시지 강화, 대상·최우수상 등 다수 작품 선발과 시상 - 수상작의 환경교육·홍보 자료 활용 계획과 가족 골든벨 상영 연계 발표, 시민·기관·단체 협력 강화와 거점기관 역할 확립을 통한 지역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
	<p>□ 경남적십자사 RCY, 플로깅·수소전시 체험으로 청소년 탄소중립 인식 제고 (2025.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Y 회원이 창원 대상공원 플로깅과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 관람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현장 체험 진행, 수소·전기에너지·친환경 모빌리티·ESS 부스 체험을 통한 기술 이해도 향상 - 청소년의 환경정화 활동 참여와 체험 기반 학습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개인 소감 공유를 통한 내적 동기 강화와 지역사회 실천 확산 기대, 학교·지역 연계 확대 필요 -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기술 발전 흐름을 청소년 시각에서 체득하는 기회 제공, 미래 세대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와 지역 커뮤니티 리더십 형성에의 기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세종한글축제, 다회용기 전면 도입으로 온실가스 13.6t 감축 (2025.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호수공원 축제에서 다회용 컵·용기·식기도구 11만5540개 사용 집계, 환경부 원단위 적용 환산 결과 13.6t 감축 효과 산출, 20년생 소나무 3480그루 연간 흡수량에 해당하는 효과 제시 - 반납 부스 운영과 시민 참여를 통한 높은 회수율 확보, 31만 명 방문 규모의 대형 행사에서 일회용품 억제와 자원순환 행동 실천 확산, 지역 행사 표준 모델로의 확산 가능성 부각 - 다회용기 사용 확산과 재사용 문화 정착 의지 표명, 지자체·민간 운영사 협력과 지원 체계 고도화를 통한 상시 운영 체계 구축 필요
	<p>□ 광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50기 확충...2045 탄소중립 가속 (2025.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까지 배터리 스와핑 충전시설 총 50기 구축 계획 발표, 충전 시간 30초 수준 전환을 통한 이용 편의 향상과 주택가 배출·소음 저감 기대,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대체 효과 확산 - KS 규격 표준형 도입으로 특정 제조사 종속성 완화와 향후 표준형 전기이륜차 호환성 확보, 보조사업자와의 협력으로 단계적 확장과 본격 운영 전개 - 전기이륜차 130대 보조금 지원과 취약계층·배달용 추가 지원 병행, 인프라·보조금 패키지 정책을 통한 보급 촉진과 2045 탄소중립 도시 목표 진전
	<p>□ 스웨덴 왕세녀 방한, 한·스 '제조강국' 녹색전환 협력 강화 제안 (2025.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개막식에서 2050·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험·기술 공유와 협력 강화 촉구, 디지털 전환 시대 핵심 파트너십 의지 표명 - 양국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공통점을 기반으로 상호보완 협력 잠재력 확인, AI·바이오·해양·운송·에너지 분야 협력 확장 가능성 제시 - 정부·기업 동행 경제사절단 참여로 공급망·R&D·표준 협력 논의 진전, 지속가능 성장과 녹색전환을 결합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제주 파력 기반 ‘해양 그린수소’ 실증, 탄소중립 미래 에너지 옵션 부각 (2025.1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용수 시험파력발전소 등 해양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 추진, 국내 그린수소 목표 2030년 25만t·2050년 300만t 제시, 재생전력 전기분해 기반 무탄소 수소의 전략적 가치 부각 - 파력·해상풍력 기반 수소 전환의 경제성 한계와 공간·저장 제약을 해상 플랫폼으로 보완하는 모델 제시, 현재 단가와 개질수소 격차 존재에도 2040년 kg당 3000원 목표 제시, IEA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시장성 확대 기대 - 울릉도·제주 서남부 등 파력 적지 제시와 주민 수용성, 인프라 구축, 안전 이격거리 등 현장 과제 확인, 일관된 정책과 투자, 국제 협력에 기반한 상용화 로드맵 수립 필요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김영훈 장관, “AI·고령화 전환기, 노동 존중 '진짜 성장' 만들 것”(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정감사에서 AI 기술 변화와 저출생·고령화의 전환기 속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활력을 높ی겠다고 말함 - 김 장관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개편, AI 중심 직업 훈련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약속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후 산업재해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함 - 격차 없는 상생 일터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과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함.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과기·산업·중기부 '기업 출신 3장관', 산업계 AI 대전환 원팀 구성(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장관이 산업계 AI 대전환(AI)을 위한 '원팀'을 구성함. 15일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민간 AI 사업 경험이 있는 세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함 - 배경훈 부총리는 AI 모델 개발만큼 산업 현장 이해와 데이터 조합이 중요하며, AI 성공사례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함. 김정관, 한성숙 장관 역시 '원팀' 협력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함 - 세 부처는 AI 역량 강화,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 AI 생태계 조성, 국정 과제 이행 등에 협력할 예정임. 대통령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도 TF를 꾸려 세 부처의 협력을 지원할 방침임
	<p>□ 관세청, 불법유통·환치기·AI 혁신 등 '관세의 힘' 성과 발표(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이 '9월의 관세인'과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관세행정의 전문성과 헌신을 조명함. '9월의 관세인'에는 631억 원 규모의 불법유통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호연 주무관이 선정됨 - 조사 분야에서는 250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조적을 검거한 조정아 주무관이, 마약 단속 분야에서는 100억 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한 김도훈·고경호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됨 - 3분기 핵심가치상은 APEC SCCP 준비기획단(명예공지), AI 추격조(변화혁신), 국민소통 콘텐츠 제작팀(소통협력), 덤핑방지관세 회피 차단팀(책임헌신)이 수상함. AI 행정혁신 등 다양한 성과가 인정받음
지자체	<p>□ 경기도, 전국 최초 제조기업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체계 구축(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조기업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됨. 이 센터는 성남에 구축되며 5년간 총 151억 4000만 원이 투입됨. 센터는 제조 현장 데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터 학습 기반을 마련해 AI 모델 개발 허브로 기능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는 최신 GPU 인프라 구축, 제조업 특화 알고리즘 제공,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전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효율 극대화를 지원함. 경기도는 이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p>□ 김영록 전남지사,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남 미래 산업 선도 전환점"(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픈AI-SK 합작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전남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라 평가함. 이는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기회임을 강조한 것임 - 김 지사는 이번 유치가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 이후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기반을 마련해 온 노력의 결실임을 설명함.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강조함 - 전남도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총괄할 '에너지 미래도시 기획전략본부'를 신설함. 김 지사는 이번 유치가 전남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농수산 중심에서 미래 첨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기회임을 역설함
	<p>□ 성남시,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으로 혁신 허브 도약(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를 조성함. 총 151억 4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K-제조 산업의 AI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예정임 - 센터는 제조 데이터 기반 AI 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국가 전략 거점임. 판교의 첨단산업과 성남하이테크벨리의 제조기반을 연계해 대한민국 제조 AI 산업 혁신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임 - 센터는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도입해 '팩토리 브레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제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 '성남형 수요-공급 매칭 거점'을 구축해 AI 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울산시, AI 융합 교육으로 콘텐츠 산업 혁신 가속화(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10월부터 맞춤형 AI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콘텐츠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함임 - 교육은 'AI 툴 활용 콘텐츠 제작', 'AI 융합 영상제작', 'AI 활용 게임 기획'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됨.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울산글로벌게임센터가 각 과정을 주관하며 실무 중심으로 진행됨 - 각 과정은 콘텐츠 기업 종사자, 예비 창업자, 대학생, 시민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AI 기반으로 재편되는 콘텐츠 산업에 맞춰 지역 인재의 제작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p>□ 김해시, "AI로 침수 감지"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박차(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함. 2027년까지 총 165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재난 대응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도입할 계획임 - 핵심 기술은 AIoT 기반 침수 대응 시스템으로, 태양광 침수센서와 스마트블라드가 침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위험을 경고함. 정보는 플랫폼으로 전송돼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처와 시민 앱 경보를 가능하게 함 - 특히 빗물받이 QR 위치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짐. 'A.C.E 김해' 전략 아래 기술, 행정, 시민이 연결되는 통합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 도시로 도약할 방침임
	<p>□ 충남도, "도민 안전·AI 경쟁력 강화" 위한 조직개편 추진(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가 도민 안전 강화, AI 생태계 구축, 스마트팜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추진함. 이는 민선8기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개편안에 따라 도 본청 기구는 3개 과 9개 팀이 확대·신설됨. 자치안전실에 '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난상황관리과'를 설치해 재난 초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재산관리과'를 신설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제실에는 'AI육성과'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 또한 건설본부 북부사무소, 노인정책과 통합돌봄팀,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산업팀 등을 신설해 지역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응함
	<p>□ 울산 문화예술인, 복합문화공간 및 AI 콘텐츠로 활동 영역 확대(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출신 이보미 비모어 대표는 지역 예술 활동과 독립대안문화공간 운영, AI 기술 접목 문화콘텐츠 제작 등 척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젊은 예술인임 - 이 대표는 울산 남구 삼산동의 폐공장을 개조해 창작, 공연, 전시, 카페, 펍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비모어'를 운영 중임. 이곳은 지자체 지원 없이 자생적 수익구조를 갖춘 독립대안문화공간을 지향함 - 화가이자 기획자인 이 대표는 '2025 문화도시 울산 조성 구·군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을 AI 기술로 재해석하는 콘텐츠를 제작 중임. 이를 통해 울산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임
	<p>□ 강원도, 2029년까지 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450명 양성 목표(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가 15일 강원대학교에서 '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발대식을 개최함. 이 사업은 2029년까지 5년간 전문인력 450명 양성을 목표로 하며, ETRI, 한국생산성본부 등 최고 기관이 참여함 - 발대식에서 강원도, 강원대, ETRI, 한국생산성본부는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인적·물적 역량 공유, 국비 사업 발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함 - 10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AI 기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시스템 반도체 응용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가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서울런 3.0, AI 맞춤형 대입 컨설팅 및 유망 직업 체험 제공(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서울런'이 AI 기술을 도입해 진로와 취업까지 돕는 종합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함.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런 3.0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함 - 가장 큰 변화는 AI 기술의 전면 도입임. 내년부터 'AI 진로·진학 코치'를 통해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 도구도 지원함. 내년 3월 2000명 대상 시범 운영 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대상 '진로 캠퍼스'를 운영하고 '예체능 클래스'도 신설함.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 및 다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해 수혜 대상이 1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p>□ 경기도서관, '기후위기·AI시대 대응 도서관 전략' 국제 컨퍼런스 개최(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10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25일 경기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기후환경, AI, 지식과 미래를 잇는 도서관'을 주제로 진행됨 - 행사에는 국내외 도서관 전문가와 도민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와 AI 시대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전략을 모색함. 개막 리더스 포럼과 최재천 교수, IFLA 차기 회장 등의 기조강연이 예정됨 - 오후에는 '기후·환경 도서관 실천'과 '미래사회의 기술변화와 도서관의 대응' 두 가지 주제 세션이 진행됨. 도는 경기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도서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람·AI·지구가 공존하는 도서관' 비전을 실현할 계획임
	<p>□ IFEZ, '강화남단·K-콘랜드·AI 허브'로 미래 비전 제시(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IFEZ 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강화남단 개발, K-콘랜드 조성, AI 중심 바이오 허브 구축 등 미래 전략을 논의함. 38명의 위원이 참석해 IFEZ의 비전을 공유함 - IFEZ의 신 성장거점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이 집중 논의됨. 이곳은 바이오, 피지컬 AI,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첨단 스마트도시 및 탄소중립 도시로 조성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영종·청라 일대를 'K-콘텐츠 체험·유통 허브(K-콘랜드)'로 육성하는 전략과, IFEZ를 'AI 추론 전진기지'로 특화해 바이오 및 K-콘텐츠 산업과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비전이 제시됨
	<p>□ 대구 'FIX', 한국판 CES 목표로 AI 대전환 선도(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가 한국판 CES를 목표로 통합 개최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가 22일부터 엑스코에서 열림. 2회째인 올해는 'All on AI'를 주제로, 대구가 AX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올해 FIX는 참가 기업이 585곳으로 늘고,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복싱' 등 CES, MWC에서 선보인 기술을 국내 최초로 유치함. 엘앤에프, 경창산업 등 지역 기업의 신기술 홍보 무대도 확대됨 - 모빌리티, 로봇, ICT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AI 융합 기술이 전시될 예정임. 16개국 87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컨퍼런스도 열려 미래 산업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될 것임
	<p>□ 경남도, 내년부터 '경남형 통합돌봄' 시행... AI 복지플랫폼 구축(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함. 이는 기존 공급자 중심 체계를 개편해 노인, 1인 가구 등에 일상, 주거, 보건·의료, 이웃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것임 - 서비스는 4중 안전망 체계로 가동되며, '틈새돌봄'과 '이웃돌봄'이 핵심임. 틈새돌봄에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관내외 동행지원' 서비스가 포함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적용됨 - 경남도는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함. 14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개통 목표이며, 도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AI 상담으로 한 번에 요약해 답변받을 수 있게 함
	<p>□ 경북도, AI 드론 활용한 선제적 산불 예방 단속 돌입(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선제적 산불 예방을 위해 AI 드론을 활용함.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합동 드론 단속팀을 운영해 불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소각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팀은 AI 활용 드론 관제시스템과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을 이용해 산불 발생 원인 근절에 초점을 맞춤. 특히 안동, 의성 등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포함한 취약지를 중심으로 불법 소각, 무단 입산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함 - 경북도는 2023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현장 대응에 활용 중임. AI 기능은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의 재난 상황을 자동 감식하고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해 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임
	<p>□ 완주청소년문화의집, '피지컬AI 자율주행 로봇여행' 프로그램 성료(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세대가 함께하는 '피지컬AI 자율주행 로봇여행'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이 행사는 완주군의 미래교육 비전과 피지컬 AI 선도 의지를 담아 AI와 로봇 기술 체험의 장으로 마련됨 - 청소년과 어른이 한 팀을 이뤄 자율주행 로봇을 조립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경로를 설계함. 유희태 완주군수도 행사에 참석해 AI와 로봇기술이 미래세대 역량의 밑거름이 된다면 참여자들을 격려함 - 참가자들은 세대 간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함.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AI 교육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힘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탄소중립은 공짜 아님” 전기요금 방향 논의 세미나 개최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의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이후 향후 요금 체계와 과제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연료비 하락에 따른 인하 요인과 과거 미반영 인상 요인의 공존 상황 정리, 탄소중립 추진과 전기요금의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성 부각 - 누적 적자와 대규모 계통 투자, RPS·ETS 비용 증가 등 구조적 비용 요인 제시, 탄소중립의 비용 현실에 대한 대중적 이해 확산 요구, 합리적 요금 체계 개편과 규제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제기 - 전력산업 독립규제기관 역할과 요금 합리화 방향 발표 및 패널 토론 진행, 규제 거버넌스 재설계와 비용 신호 정합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전력시장 구축 기대
	<p>☐ “CCUS 필수 기술 부상...초기시장 인센티브와 통계 인프라 필요”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감축 부문 대응 핵심 수단으로 CCUS의 전략적 역할 부각, 2026년 첫 저장 사업 개시 필요성과 국내 저장 한계에 따른 국제 협력 필요성 제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 요구 - CO₂의 낮은 부가가치와 전 주기 인프라 비용 구조로 인한 자생성 한계 지적, 통계 환경 구축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 필요, 생태계 조성 중심의 정부 지원과 민간 참여 유도 필요 -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확산과 기업 배출 관리 IT 솔루션 도입 가속, 정책·표준·기술의 삼각 협력에 기반한 산업 전반 감축 역량 제고 전망
	<p>☐ 에어버스, 한국을 아시아 핵심 파트너로 선언...R&D·탄소중립 협력 확대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 협력 기반 위에서 공급망 강화와 한국 R&D센터 설립 구상 제시, 지속가능 항공유와 수소항공기 등 탄소중립 기술 협력 확대 방침 천명, 전략 파트너십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통한 동반 성장 의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대한항공과의 민·군 기체 부품 협력과 수리온·LAH 공동개발 등 항공·헬기 분야 협력 지속, 정지궤도복합위성 등 우주협력 병행, 한국 내 조달 활동의 고용·경제 효과 강조, R&D 거점화 구상의 진화 진행 - SAF 생태계 촉진과 차세대 저탄소 기체 도입 확대,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운영 협력 가능성 언급, 서울 ADEX 2025 전시를 통한 기술·제품 공개와 협력 확대 전망 <p>□ 주한규 “원자력, 저비용 전원으로 탄소중립·AI 전력 수요 대응 해법” (2025.1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경제포럼 특강에서 원자력의 낮은 발전단가와 장기 운영 경험 기반 경쟁력 강조, 태양광·LNG·석탄 대비 비용 우위 주장과 데이터 기반 판단의 중요성 환기, 전력 시스템 내 역할 재정립 필요 - 과거 전력 믹스에서의 비중과 요금·재무 구조 변동에 대한 해석 제시, 과도한 공포 대신 안전성 평가의 체계적 접근 요구, 에너지 전환 과정의 균형 있는 정책 선택 필요 - 글로벌 SMR 개발 추세와 IT 대기업 투자 흐름 소개, 국내 기술 수준과 시장 주도권 확보 가능성 언급,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병행 전략을 통한 AI 시대 전력 수급 안정화 필요.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 30개 입법과제 처리 건의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시급한 30개 법안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조속한 처리를 건의함.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과 금산분리 완화,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활동 관련 과제가 대부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는 반도체특별법과 AI지원법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 처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음. 글로벌 경쟁 속 입법 지연은 산업 전반의 속도를 뒤처지게 할 수 있으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프라 확충 등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조함 -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계 지원을 강조함. 또한 배임죄 규정 정비 및 상속세 납부 구조 현실화 등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함
	<p>□ '2025 Sea AI 포럼' 성료, 해양수산 AI 협력 생태계 구축 논의(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Sea AI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 포럼은 해양수산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기관 간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함. '인간과 AI의 협업', '생성형 AI 기반 산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됨 - 종합 토론에서는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 '실무형 AI 인재 양성', '버티컬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KMI 원장은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힘
	<p>□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 고액 체납·편법 증여 추적(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초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수 안정 관리, 민생지원 강화, AI 기반 혁신세정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함 -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확대 등을 추진함. 또한 AI·바이오 등 신산업 세정지원 강화와 납세자 편의 개선을 위한 상속세·양도세 자동채움 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함 - 2027년부터 AI 탈세적발 및 체납관리 시스템을 본격 구축해 공정 세정을 확립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계획임.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되, 악의적 고액 체납자와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임
지방기관	<p>□ 제주테크노파크, "AI와 제주 특화산업 융합 방안" 포럼 개최(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테크노파크(JTP)가 14일 'AI와 제주 산업의 융합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6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개최함 - 포럼에는 산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함 - 전문가들은 AI를 바탕으로 관광, 농업, 바이오 등 제주지역 특화산업과의 융합발전 방안을 논의함. 제주도와 JTP는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AI 연계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임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허동수 “탄소중립 AI 시대, 점진적 전환·에너지 주권·인재 강화 3대 해법” (2025.1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CSD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조업 경쟁력 유지와 청정산업 전환 병행 전략 제시, 전통 에너지원과 차세대 에너지의 균형을 통한 점진적 전환 필요성 강조, 현실적 전환 속도 관리와 산업 경쟁력 방어 - 지능형 전력망, 바이오연료, 차세대 배터리 소재 등 전략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에너지 주권 확립 제언, 외생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정 성장 기반 확보 - AI와 에너지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의 시급성 제기,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생태계 조성 과 현장형 R&D 연계 강화, 기술·정책·인력 삼축 연동을 통한 지속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경쟁우위 확보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탄소중립 실현, 산업 구조와 비용을 고려한 현실 전략 제언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년 NDC와 ETS 제4차 계획기간 확정 시기 도래, 선언적 목표를 에너지 수급계획과 연계한 법제화 현실 고려 필요, 재생에너지 비중 과도 확대 시 에너지 안보와 물가 부담 심화 가능성 지적, 목표 설정과 이행 수단의 실효성 중심 전환 필요 - 유상할당 비율 급격 확대의 비용 전가 및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제기, 배출권 총량이 감축을 결정하는 제도 본질 강조, 유상할당 수입의 저감 기술 투자 직결 사용 등 제도 보완 필요, 경쟁력 유지와 감축 병행을 위한 속도 조절 및 정책 일관성 요구 - 무리한 목표로 인한 탄소 누출과 기간산업 위축 위험 경계, 중공업 등 난감축 부문 기술 상용화 수준 고려한 점진적 로드맵 필요, 성장과 전환의 선순환 구축 및 국제 공조 기반의 균형 감축 전략 필요 <p>□ RE100 시대적 요구 강조...탄소중립 접근 사고와 행동 전환 제언 (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생산·저장 제약과 수요 변동성 특성을 고려한 효율 정책 필요성 재확인, 원전·화력의 운영 제약과 비용 구조 설명, 재생에너지 확대의 불가피성과 전력 체계 전환의 점진적 추진 필요성 평가 - 태양광·풍력 입지 한계와 해상풍력 벨트 조성 계획 소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등 전력 수급 환경 변화 반영,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기술·사회적 과제 강조 - 기업 RE100 이행의 불가역적 흐름 제시, 개인·사회·기업의 전 과정 친환경화와 탄소중립적 사고·행동양식 확산 촉구, 가치사슬 전반의 감축 책임 강화 제언 <p>□ KAIDA 30주년 세미나, 자율주행·탄소중립·안전 정책 과제 논의 (2025.1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차 업계의 기술 혁신 역할과 전동화 전환 방향 공유,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대규모 투자와 테스트베드 필요성 제언, 정책 로드맵 고려한 기업의 단계적 도입 전략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국내 수송부문 NDC 이행을 위한 정책·기술 시나리오 검토, 중대형 전기트럭 보급 확대 사례와 지원 제도 비교, 국내 인프라·세제·보조금 정합성 제고 필요 - 안전기준 특례 절차의 명확화와 규제 유연성 확대 요구, 표준·인증·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 고도화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전환 비용 최소화과 시장 활성화 추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뤼튼, 'AX 리포트' 공개... "AI로 노동시간 최대 73% 단축"(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업무용 AI 에이전트 도입 성과를 담은 'AX 리포트 2025'를 공개함. 이 리포트는 AI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증가에 실질적인 업무 혁신 효과가 있음을 입증 - 리포트는 고객 상담, 재무,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 4개 분야의 AX 효과를 독자 지표인 '뤼튼 AI 생산성 지수'로 분석함. 고객 상담 에이전트는 노동 시간 73% 단축 및 생산성 35% 증가라는 가장 큰 효과를 보임 - 재무 및 개발 분야 에이전트 도입 역시 상당한 노동 시간 감축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입증함. 뤼튼AX 대표는 이번 리포트가 AI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실제 효과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함
	<p>☐ SK브로드밴드, AI 기반 'AQUA' 시스템 도입으로 B tv 품질 혁신(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브로드밴드가 AI를 활용해 B tv 고객 불편사항을 사전에 감지하고 해결하는 신규 품질관리 시스템 'AQUA'를 도입함. 이는 AI가 이상 현상을 먼저 감지해 조치하는 고객경험지표(CEI) 관리 시스템임 - 'AQUA' 시스템은 모든 B tv 셋톱박스에서 매일 22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서비스 품질을 24시간 점검함. 방송설비부터 TV까지 전 구간에서 약 740개 지표로 품질을 실시간 분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톱박스별 품질을 5등급으로 분류 관리하며, 품질 저하 징후 시 선제적 개선 활동을 진행함. SK브로드밴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불편이 연간 약 3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할 계획임
	<p>□ 인텔, AI 추론용 데이터센터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 공개(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텔이 '2025 OCP 글로벌 서밋'에서 차세대 데이터센터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를 공개함. 이 제품은 급증하는 AI 추론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고용량 메모리와 에너지 효율성이 특징임 - 인텔 최고기술책임자는 AI가 실시간 전역 추론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함. 인텔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개방형, 워크로드 중심 아키텍처를 구축해 배포가 용이한 AI 시스템을 구현 중임 - '크레센트 아일랜드'는 와트당 성능을 극대화한 Xe3P 마이크로아키텍처, 160GB LPDDR5X 메모리 등을 갖춘. 인텔은 개방형 통합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 중이며, 신제품 고객 샘플링은 2026년 하반기 제공 예정임
	<p>□ AMD, 메타 '오픈 랙 와이드' 기반 AI 인프라 플랫폼 '헬리오스' 발표(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D가 '2025 OCP 글로벌 서밋'에서 메타의 '오픈 랙 와이드(ORW)' 규격을 기반으로 한 신규 AI 인프라 플랫폼 '헬리오스'를 공개함. 이는 개방형 하드웨어 철학을 랙 수준으로 확장한 모델임 - '헬리오스'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 냉각, 유지보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됨. ORW 스펙은 더블 와이드 랙 설계로 차세대 AI 시스템의 전력 효율과 냉각 성능을 극대화함 - AMD는 헬리오스가 개방형 표준을 실제 배포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한 사례임을 강조함. 향후 헬리오스를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제시해 OEM, 하이퍼스케일러 등이 개방형 AI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SK하이닉스, 이천시에 'AI 반도체 드림 버스' 전달(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가 15일 이천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반도체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AI 반도체 드림 버스'를 이천시에 전달함. 전달식은 이천 사동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이 버스는 SK하이닉스가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금으로 마련됨. 내부는 반도체 공장 분위기로 조성되었으며, 반도체 원리, 공정 과정, 진로 성향 검사, 팸 영상 투어 등 생생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함 - 드림 버스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등과 협력해 초중학교를 방문하고,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및 이천쌀문화축제 등에도 배치될 예정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이번 기회로 이천 학생들이 반도체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함
	<p>□ 시스코 보고서 "한국 기업 AI 선두주자 8% 불과, 인프라 미흡"(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코 '2025 AI 준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I 성과를 내는 '선두주자' 기업 비중이 한국은 8%로, 글로벌 평균 13%보다 낮음 - 한국 기업은 AI의 중요성은 인식하나(74% 도입 계획), 예산 투입(27%)이나 최우선 투자 지정(15%) 등 실제 투자는 미흡함. GPU 보유(16%)나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32%) 역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 인식과 투자 간 괴리를 보임 - 정부는 15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범부처 AX 확산 MOU를 체결함. 이는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방침임
	<p>□ 인트플로우 '엣지팜', 돼지 걸음 분석 AI로 CES 주목(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차 AI 기업 인트플로우가 양돈 농가의 AX를 이끄는 애그테크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CCTV 영상과 음성을 AI로 분석해 농가의 24시간 비대면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 2019년 설립된 인트플로우는 GIST 출신 전광명 대표가 개발한 비대면 가축 건강관리 솔루션 '엣지팜'을 제공함. 딥러닝 영상분석으로 가축의 활동량, 이상행동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농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 패밀리 기업 지정 등 연구기관의 지원이 성장에 힘이 됨. 인트플로우는 축산업을 넘어 군집분석, 교통량 확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AI 응용 범위를 확대하며 KISTI '2025 글로벌 ASTI 리더스포럼' 수상기업으로 선정됨
	<p>□ 레드햇 AI 3 출시, 분산형 추론 AI 탑재로 복잡성 단순화(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햇이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향상한 '레드햇 AI 3'를 최근 출시함 - 이번 플랫폼은 '레드햇 AI 인퍼런스 서버', 'RHEL AI', '레드햇 오픈소프트 AI'의 최신 혁신 기술을 통합 제공함. 이를 통해 대규모 고성능 AI 추론의 복잡성을 단순화함 - 또한 기업이 기술 개념검증(PoC) 단계에서 워크로드를 쉽게 전환하고 AI 기반 협업업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함. 이 플랫폼은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어떤 인프라에서도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
	<p>□ KT, 전 직원 AI 윤리 교육 의무화... "AI 중심 체질 개선"(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가 1만 40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을 의무화함. 이는 개발자뿐 아니라 모든 조직을 AI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고, 관련 신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침임 - 신입 직장인들은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등 AI 부작용을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함. 또한 AWS 사례처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AI 도구 활용 능력과 전략적 사고가 중요해짐 - 건설, 금융 등 전통 산업에서도 AI 기반 안전관리, 고수익 상품 판매 전략 등 체질 개선이 확산 중임. 신입 직장인들은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에 적응하며 성과 창출 능력을 입증해야 함
	<p>□ 노용석 차관, "AI는 생존기술... 스타트업 전폭 지원"(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2025(KPAS 2025)' 행사가 16일 서울 잠실에서 열림. KT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및 대기업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의 협업 모색을 위해 마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축사에서 AI가 경제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며, 혁신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라고 강조함.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 기술임을 역설함 - 노 차관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의 AI 스타트업 전폭 지원책을 소개함. 김영섭 KT 대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결합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다짐
	<p>□ 삼성SDS, 네이버·카카오·KT와 '빅텐트' 꾸려 국가AI컴퓨팅센터 도전(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SDS가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수주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KT를 포함하는 초대형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함. 이는 두 차례 유찰 후 완화된 새 공모 요건에 따른 전략적 움직임임 - 정부가 복수 CSP 컨소시엄을 우대하는 상황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및 카카오, KT의 관계사 CSP가 참여하는 '빅텐트' 전략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공공 지분을 하향으로 민간 부담금이 약 2800억 원 규모로 늘어 대기업의 참여가 유리해짐. 사업 향방은 21일 신청 마감 후 가려질 전망이며, 컨소시엄 구성은 막판까지 유동적일 수 있음
	<p>□ 5대 그룹 총수, 美 마러라고 방문... AI·반도체 한미 협력 강화(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등 5대 그룹 총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임. 이는 AI, 반도체 등 한미 협력 강화 전망으로 이어짐 - 총수들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며, 18일(현지시간) 손 회장 및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임. 손 회장이 추진하는 700조 원 규모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논의가 관측됨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의 핵심 파트너사임. 이번 회동에서 스타게이트 협력 구체화 및 AI,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추가 협력,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동의과학대, 부산 채용박람회서 건강 상담 및 AI 체험 부스 운영(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과학대학교가 '2025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건강 상담, AI 체험, 학과 홍보 부스를 운영함.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임 -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58개 기업과 6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함. 동의과학대 의료피부미용과는 오라측정기를 활용한 건강 상담을, 헤어뷰티과는 AI 두피진단 및 스타일링 추천 체험을 운영함 - 입학홍보처는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 진학 정보를 제공해 홍보 효과를 거둠.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서비스를 실천한 사례이며, 지역 협력과 성인학습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p>□ 맹수석 교수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AI 시대 대전교육 논의(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교육 혁신포럼'이 15일 세미나를 개최함. AI 시대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 포럼에는 박범계, 장철민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함 - 포럼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의 'AI 시대와 교육의 미래' 특강으로 시작함. 이 교수는 AI 시대에 비판적 시각을 갖춘 초학제적 문해력과 인간의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어 박용한 충남대 교수가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기반의 사회정서학습(SEL)'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이 진행됨. 맹수석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미래교육의 본질을 확인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p>□ 경북대-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소재·AI·바이오 연구 업무협약 체결(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학교가 15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신소재,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의 우수 인력 교류와 연구 자원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함 - 양 기관은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인적·물적 교류 및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임. 허영우 총장은 미래 신산업 선도 성과 창출과 인재 양성 기반 공고화를 다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오픈AI, 챗GPT 내 상점 및 자체 칩 설계로 AI 전방위 확장(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가 자체 AI 칩 설계와 리테일 협업에 속도를 내며 전방위적 행보를 보임. 컴퓨팅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쇼핑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됨 - 오픈AI는 월마트와 협력해 챗GPT 내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즉시 결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임. 이는 옛시, 쇼피파이에 이은 파트너십 확장으로, AI 기반 '대화형 커머스' 시대의 본격화를 예고함 - 또한 오픈AI는 브로드컴과 10GW 규모의 맞춤형 AI 칩 설계에 착수함. 이는 폭증하는 AI 수요에 대비하고 AI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챗GPT를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는 'AI 커머스 허브'로 진화시키려는 계획임.
기타	<p>□ '글로벌 AI컨퍼런스 AICON 광주 2025' 개막, AI 중심도시 비전 가속(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AI 최신 기술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컨퍼런스 AICON 광주 2025'가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함.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AI 중심도시 비전을 강조함 -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진형 KAIST 명예교수, 유영진 LSE 교수 등이 기조강연자로 나섬. 또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AI 정책과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세션 및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진행됨 -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AI TECH+ 2025'에서는 45개 기업이 75개 부스를 운영함. AI반도체, 클라우드,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술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p>□ 김병국 ASTI 회장, "AI 시대는 기회, '글로벌 ASTI'가 세계 시장서 해법 모색"(2025.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병국 전국 ASTI 회장이 16일 '2025 글로벌 ASTI 리더스포럼' 환영사에서 AI 기술 수용 속도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고 말함 - ASTI는 KISTI를 중심으로 출범한 국내 최대 산·학·연·정 협의체임. 김 회장은 AI로 인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의 시대로 봐야 하며, ASTI 리더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DNA를 가졌다고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ASTI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산업 혁신을 개척 중이며, '글로벌 ASTI'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 확장에 나섬. 이번 포럼이 경험 공유와 해법 모색을 통해 국경을 넘는 기업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p>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